

『內經』의 古今變動思想에 대한 研究

魯明源

山東中醫藥大學

古今變動思想은 『內經』 恒動觀의 중요한 體現으로서 中醫學術思想의 形成과 發展에 대하여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本篇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內經』 중에서 古今變動觀은 尊古思想에서 드러나는데 尊古란 崇古, 尙古라는 의미로서 中國傳統文化에서 아주 보편화된 현상이고 “지금이 이전보다 못하다.(今不如昔)”. “선조는 지극히 聖明하다”라고 여기는 문화적 심리상태이다. 『黃帝內經』이라고 이름지은 것이 바로 이런 문화적 심리의식상태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內經』은 인체생명현상과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하여 토론할 때 늘 ‘上古’·‘中古’, ‘今世’등으로 옛날과 오늘을 구분하는데 이러한 논술에 대하여 후세인들은 단순히 ‘尊古思想’의 反映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연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有關한 學術思想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는바, 이런 문화적 현상의 뒤에서 심오한 古今變動觀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中醫의 ‘古今異制’法則의 성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시대의 바뀔에 따라 그에 적합한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1. 古今變動思想의 主要內容

(1) 古今異俗

농업을 위주로 하는 전통과 道家思想의 영향을 받아 『內經』의 작가는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提倡하였다. 그러나 歷史의 발전추세는 필연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과 멀어지게 하고 인류의 생존환경과 생활방식에 점점 더 ‘人爲’적인 자국을 남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옛날을 중히 여기고 현재를 가벼히 여기는 사상의 형성도 필연적인 추세로 되었다. 『素問·上古天真論』에는 “餘聞上古有真人 …… 中古之時有至人 …… 其次有聖人 …… 其次有賢人”등 논술이 있는데, 각도를 바꾸어서 보면 이것은 시대의 바뀔에 사람들의 生活環境, 風俗習慣, 道德水準, 意識形態, 文化背景등에 대하여 심각한 변혁과 자연기후의 거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素問·移精變氣論』에서는 “王古人居禽獸之間, 動作以避寒, 陰居以避暑, 內無眷慕之累, 外無伸官之形, 此恬澹之世, 邪不能深入也.”라고 하였고, “當今之世不然, 憂患緣其內. 苦形傷其外, 又失四時之從, 逆寒暑之宜”라 하였고, 『素問·上古天真論』에서는 “上古之人 …… 食飲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라 하였고, “今時之人不然也, 以酒爲漿, 以妄爲常, 醉以入房 …… 逆于生樂, 起居無節”이라 하였다. 『內經』 시대의 사회·문화적 가치기준으로 보면 上述한 사회상태, 문화적 습관의 변화는 養生에 있어서 자연히 “도덕의

쇠퇴”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致病因素, 發病條件의 변화와 인간체질상태의 적응성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2) 古今異質

體質環境결정론의 관점에 의하면 “환경은 체질의 형성과 발전에 대하여 시종 중요한 제약작용을 일으킨다. 개체체질의 발전 과정에서 생활조건, 음식구성, 지리적 환경, 계절의 변화 및 사회문화요소는 모두 일정한 제약적인 영향을 주고 때로는 심지어 결정적인 작용을 일으킨다.”(王琦『中醫體質學』中國醫藥科期出版社, 1995)고 하나, 만약 개체가 처한 환경의 다름이 개체사이의 체질차별을 가져온다면 古今環境의 크나큰 변화는 필연코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체질에서 확실하게 다른 경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素問·上古天真論』에서는 “上古之人, 春秋皆度百歲, 而動作不衰”, “今時之人年半百而動作皆衰”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꼭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지만 인류가 진화함에 따라 그 형태의 운동기능이 차츰 퇴화하는 객관적인 정황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질의 변화는 비교적 분명히 시대적 특징을 갖게 한다. 發病學上에서 『素問·移精變氣論』은 “恬澹之世, 邪不能深入”, “當今之世 …… 賊風數至, 虛邪朝夕, 內至五臟骨髓, 外傷空竅, 所以小病必甚, 大病必死”라고 하였다. 이것은 인류의 체력노동의 감소에 따라서 추위와 더위에 적응하는 능력이 차츰 약해진 것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제도, 자연조건, 생활상태는 모두 사람들의 체질특징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어느 한 시대의 발병상황과 질병유형도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3) 古今異治

서로 다른 시대적 환경은 인류의 체질경향을 결정하므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도 그에 따라 구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차츰 길어지고 생존환경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면 인류의 체질도 필연코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질병의 종류와 복잡한 정도는 모두 상고시대와 같은 위치에서 말할 수 없어 질병을 치료 예방하는 방법과 수단도 더 풍부해지고 계통화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素問·移精變氣論』, 『素問·湯藥醪醴論』에서 上古시대의 사람들이 약을 마시지 않고 점치고 기도하는 것으로 병을 치료하였으나, 후세에 와서는 단순히 기도만 해서는 병을 치료할 수 없고 반드시 독약으로 안을 치료하고 鑿石과 鍼艾로 밖을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의학발전의 일반적인 규칙에 부합된다.

총체적으로 『내경』에서는 옛날과 지금을 구별하고 의학시각으로부터 환경의 변화, 체질의 차별, 질병의 변이 치료의 다른 점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술하였으며 그 속에 古今變動思想의 내용이 아주 풍부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2. 古今變動思想의 중요한 意義

(1) 古今變動과 因時制宜

因時制宜는 한의학에서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회복시키며 건강을 보호, 유지하는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이고 『內經』 전체를 꿰뚫는 치료사상이다. 지금 보통 말하고 있는 因時制宜는 서로 다른 계절의 기후 특징에 따라 치료

방법과 약의 사용을 고려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古今變動觀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전면적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데 因時制宜은 응당 서로 다른 시대, 즉 年·月·日時 및 계절기후의 변화정황에 따라 예방, 보건과 치료조치도 적절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치료원칙은 개체 차이를 강조하는 辨證論治 정신을 반영할 뿐더러 같은 역사 배경하에서 집단의 체질특징의 경향성과 치료의 공통규칙성을 구현시킨 것이다. 변증법에서는 共性和 介性,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은 대립·통일되는 것이라고 여기므로 古今異治는 因時制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2) 古今變動과 各家學說

各家學說이 많고 유파가 각자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한의학의 독특한 특징이다. 各家學說의 형성은 의학가의 철학사상, 師承授受關係, 處한 지리적 환경, 독특한 경험과 성격 등과 모두 일정한 관계가 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서로 다른 시대를 대함에 있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둔 의학가를 막론하고 필연코 “上知天文, 下知地理, 中知人事”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보편적 체질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야 만이 탁월한 학설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것은 古今變動思想의 구체적인 응용이다. 이는 張元素선생이 말한 “運氣不齊, 古今異軌, 古方今病不相能也”라는 것이다. 東漢末년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가 빈번하여 잠자리를 잃고 사람들은 목숨 살리기에 바쁘니 脾胃가 內傷하였는데 이것은 溫補脾胃法이 형성하게 된 근본적인 근거이다. 이러한 學說流派는 바로 의학가들이 자기가 처한 환경의 사람들의 공통성과 치료규칙에 대한 개괄과 종합인 것이다. 물론 고명한 의학가들은 개체차이의 보편

적 존재를 중요시하여 劉河間처럼 寒涼攻邪理論을 제창하면서 溫補祛寒法을 버리지 않았는데 地黃飲子の 출현이 바로 제일 좋은 증거이다. 張景岳은 溫補陽氣를 제창하면서도 寒熱補瀉하여 치료에 치우침이 없었다.

歷代醫家들은 무릇 성과를 거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치료방법이 있는데 보편화된 것과 변화한 것을 잘 파악하므로 자기 견해가 있으면서도 옛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오로지 古今變動의 각도로부터 그 학술사상을 인식하고 분석해야 만이 그 정신적 실질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각가 학설의 장점을 취하고 치우침이 없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것을 종합하면 『內經』의 古今變動사상은 그 의미가 깊어 이 문제를 연구하면 因時制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고 치료원칙을 풍부히 할 수 있으며 또한 각가학설의 형성에 대하여 개괄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임상에서 질병을 예방·치료할 때 좋은 계발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